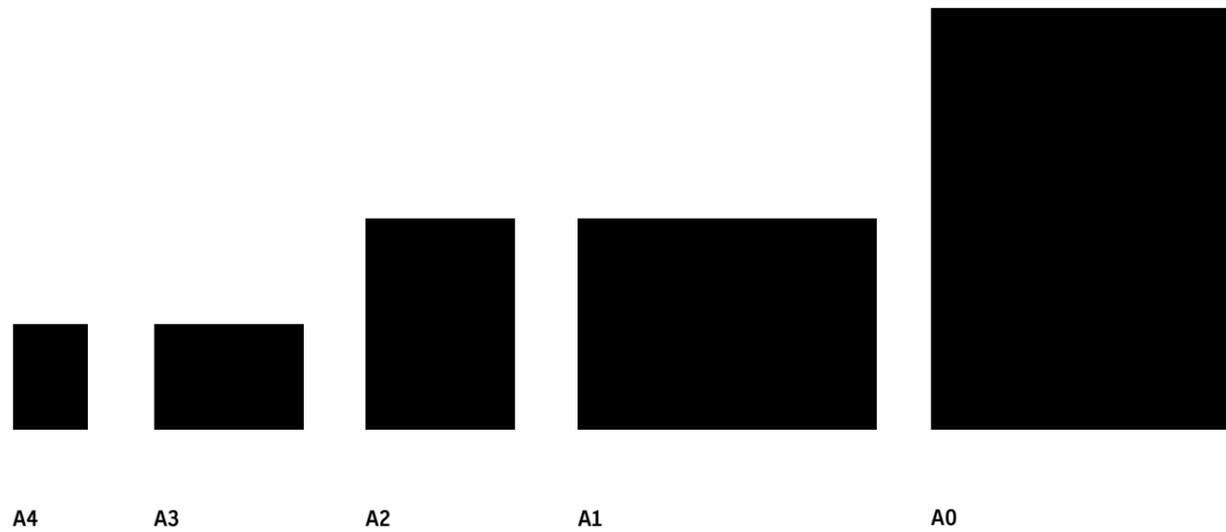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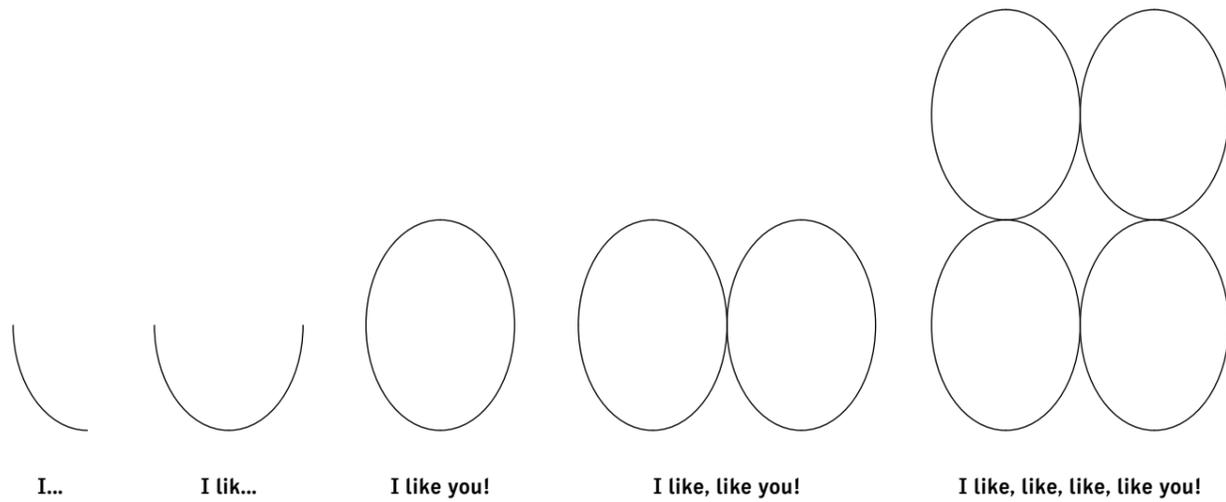


**I like you**

**UNIT OF FEELING**  
design by griong



**INSTRUCTION**

A4 is a standard size of paper.  
 we can estimate more bigger size with A4.  
 so A3, A2, A1, A0... is not just a name of paper.  
 It is also a unit of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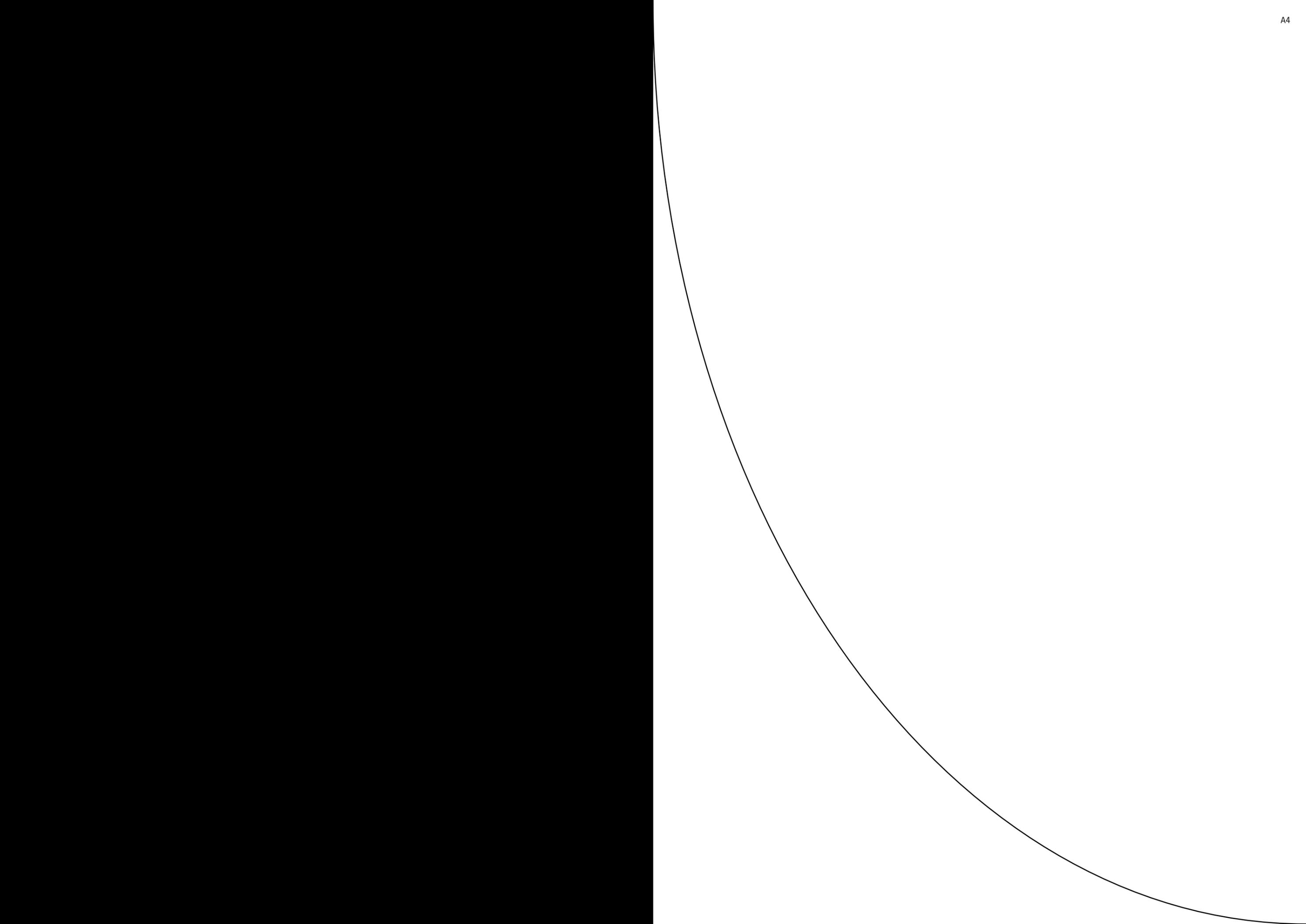
“I like you” is conceptual work to measure the size of feeling, “like”.  
 By using A4, I make an element, and use it to make patterns in more bigger size. Even more A0, A-1, A-2... more and more...  
 So this work expresses the size of feeling, “like” with patterns of circle that were from elements of A4. And then circle also generally could be used a symbol of the liking. When viewers turn the page of this book, they can find many circle patterns and feel emotion of the liking at the same time. Therefore we can say “I like you so much.” as “I like you as much as A0.”

In conclusion, this conceptual work shows possibility of unit measuring the size of feeling.

A4는 종이 크기의 표준이다.  
 우리는 A4를 통해 더 큰 크기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A3, A2, A1, A0... 는 단지 종이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크기에 대한 하나의 단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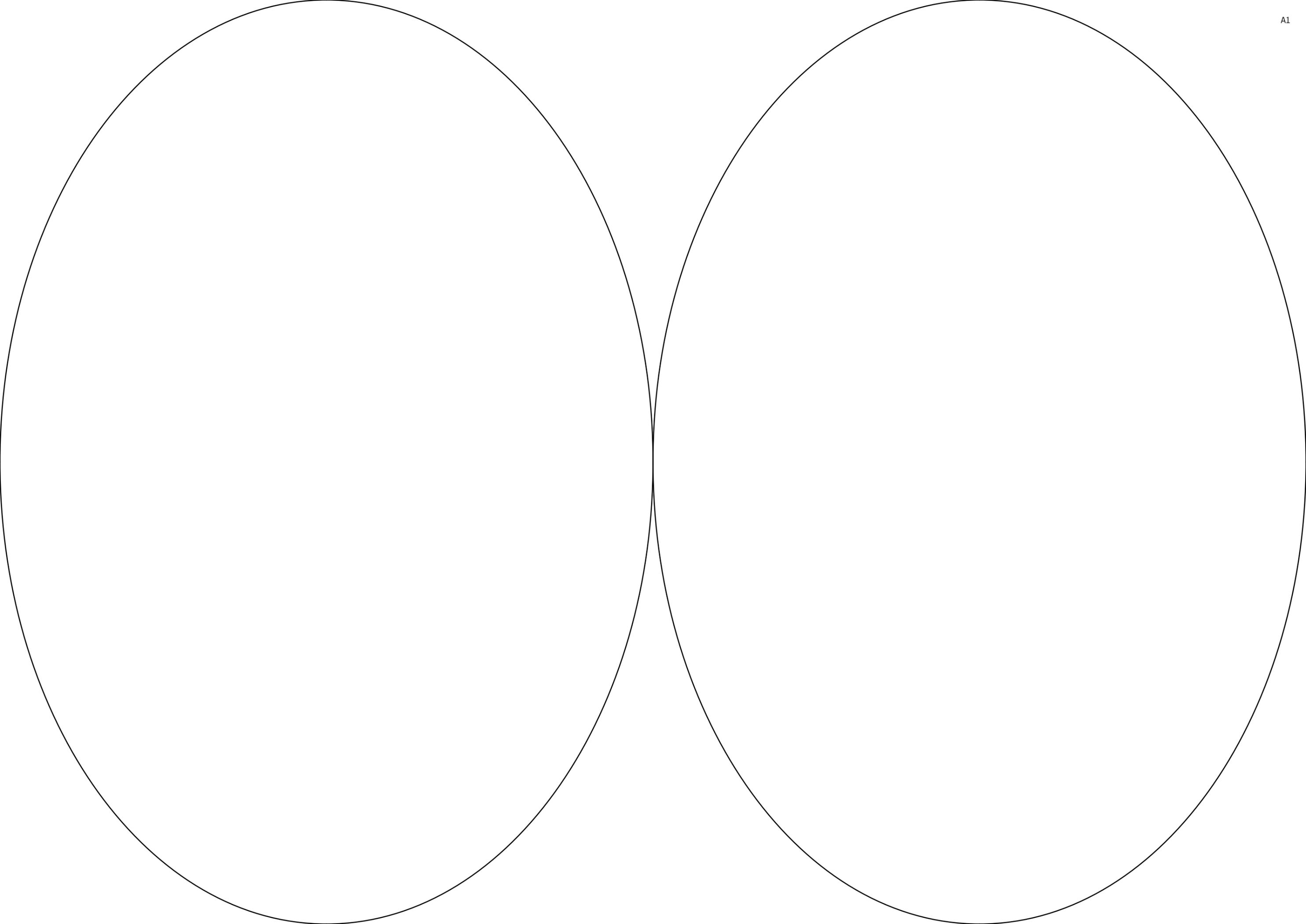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는 “좋아한다” 는 감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인 작업이다. A4를 이용해서 요소를 만들고, 종이가 A4의 비례대로 커질수록 패턴이 점점 많이 생기게 만들었다. 심지어 A0, A-1, A-2... 그 이상으로 커지는...  
 그래서 이 작업은 좋아한다는 감정의 크기를 A4의 요소에서 나온 원의 패턴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다. 또한 원은 좋아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일반적 상징으로 사용되어진다. 책을 넘길때마다, 보이는는 더많은 원의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책을 넘김으로써 더 좋아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가 매우좋다.” 는 추상적인 표현을 “나는 너가 A0만큼 좋다.” 로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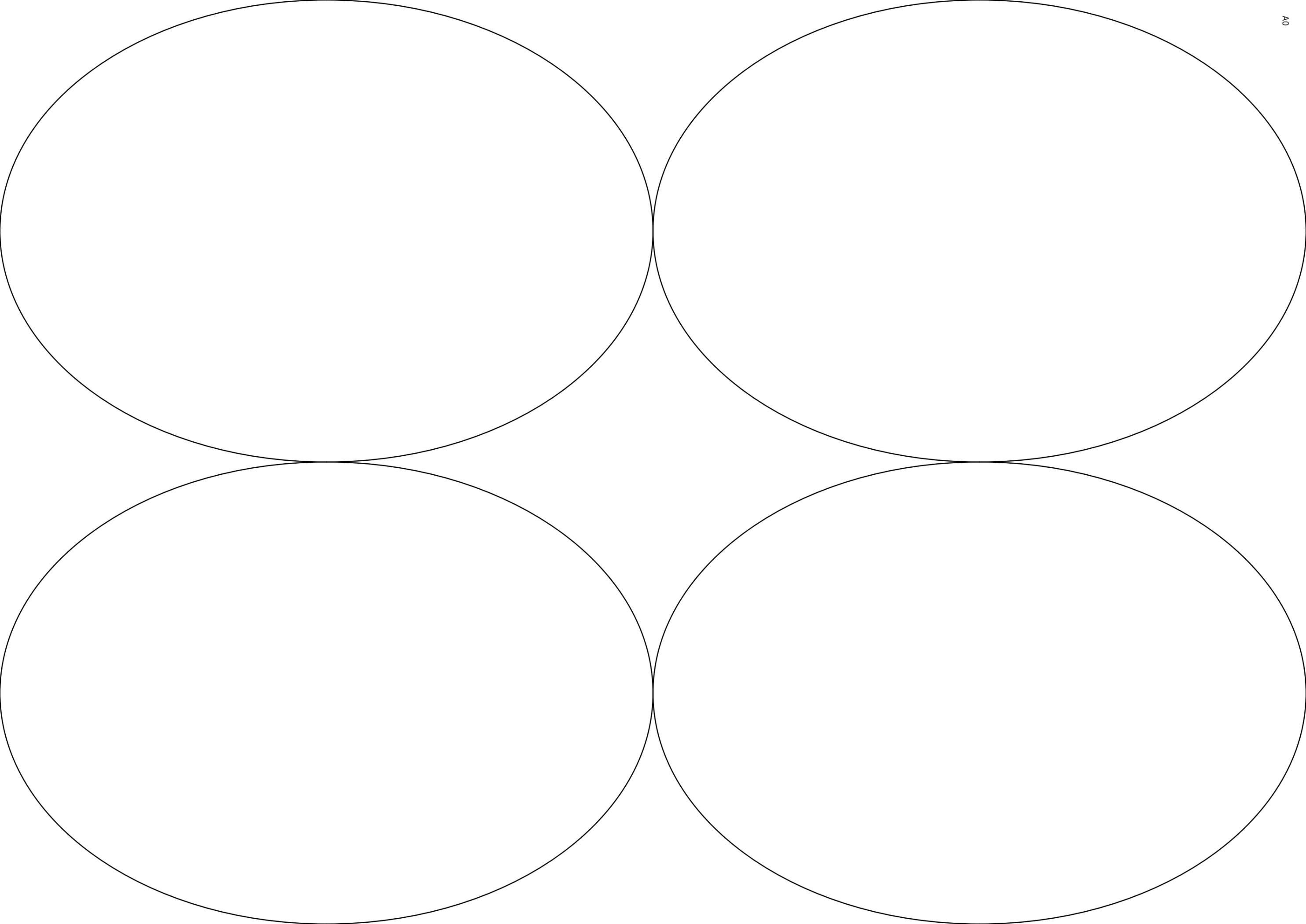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 개념적인 작업은 측정되기 어려운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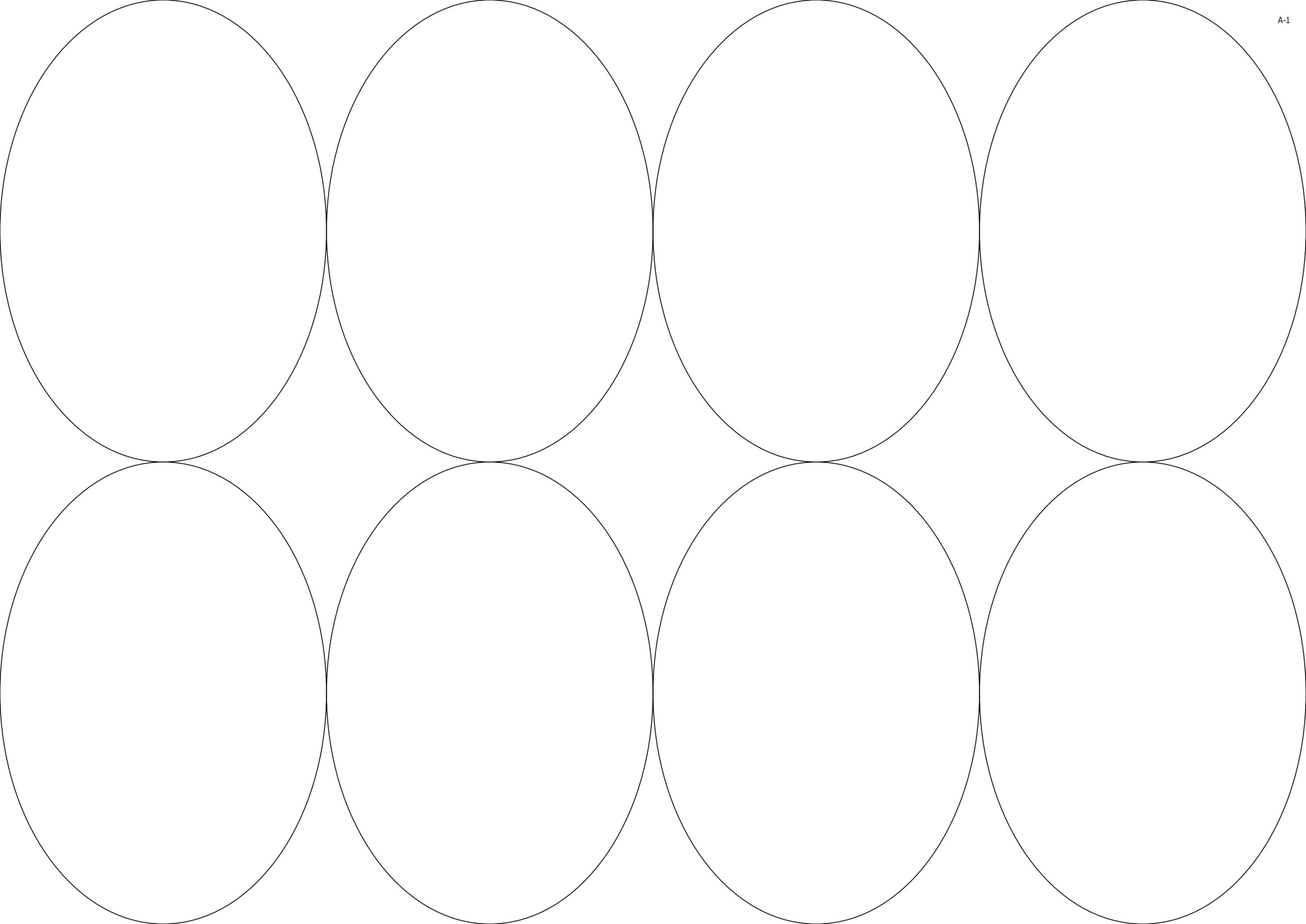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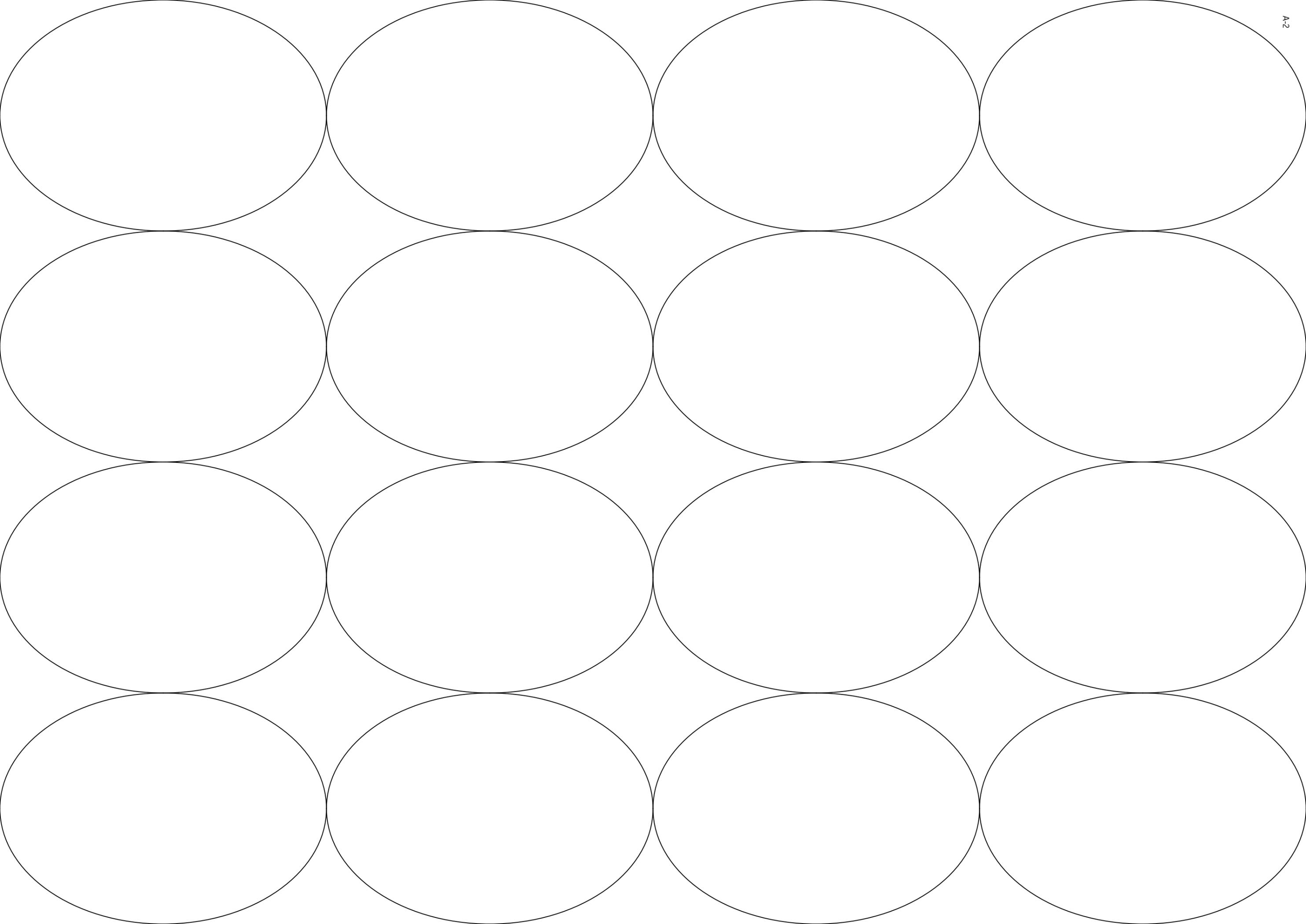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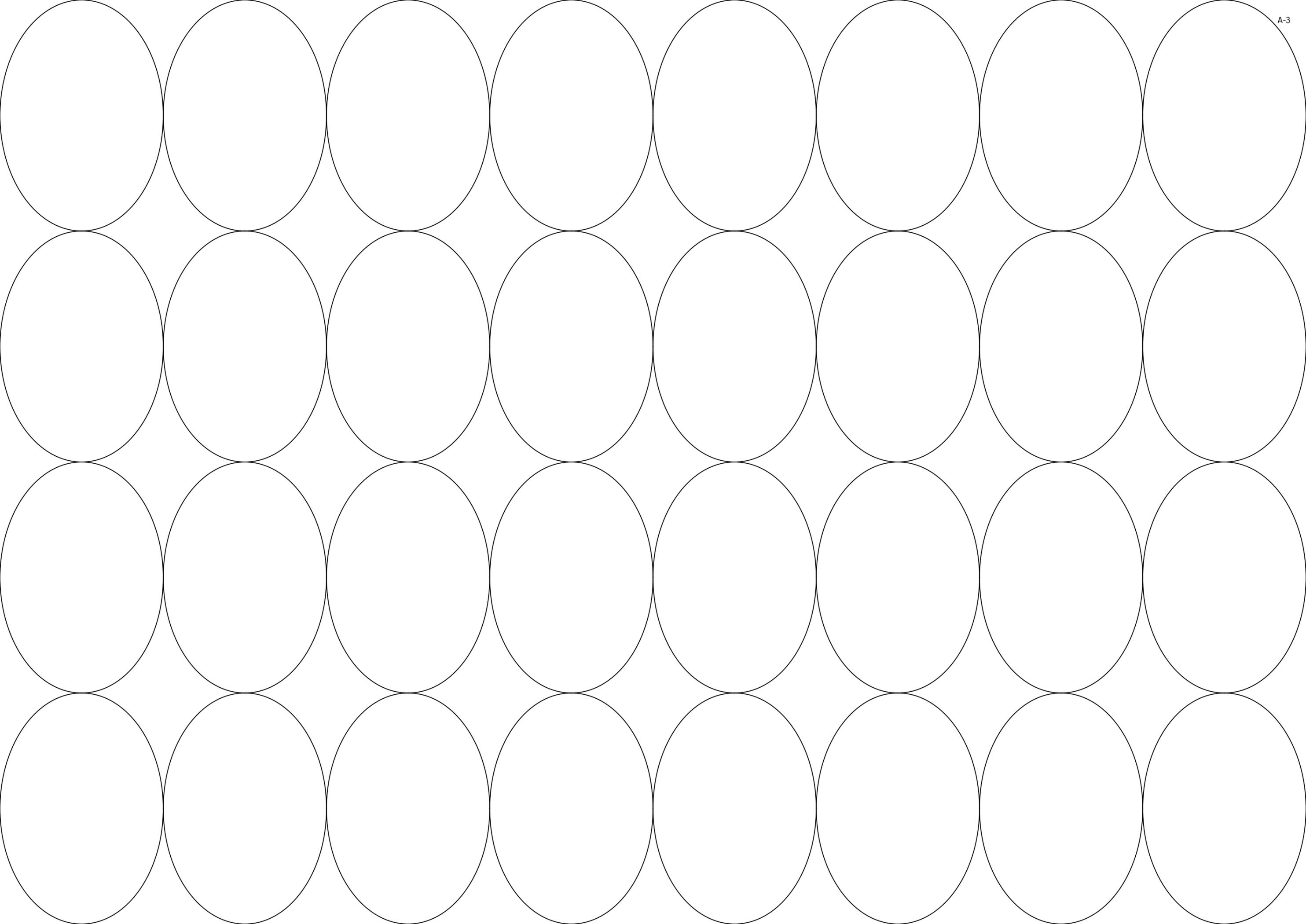
**“I like you, as much as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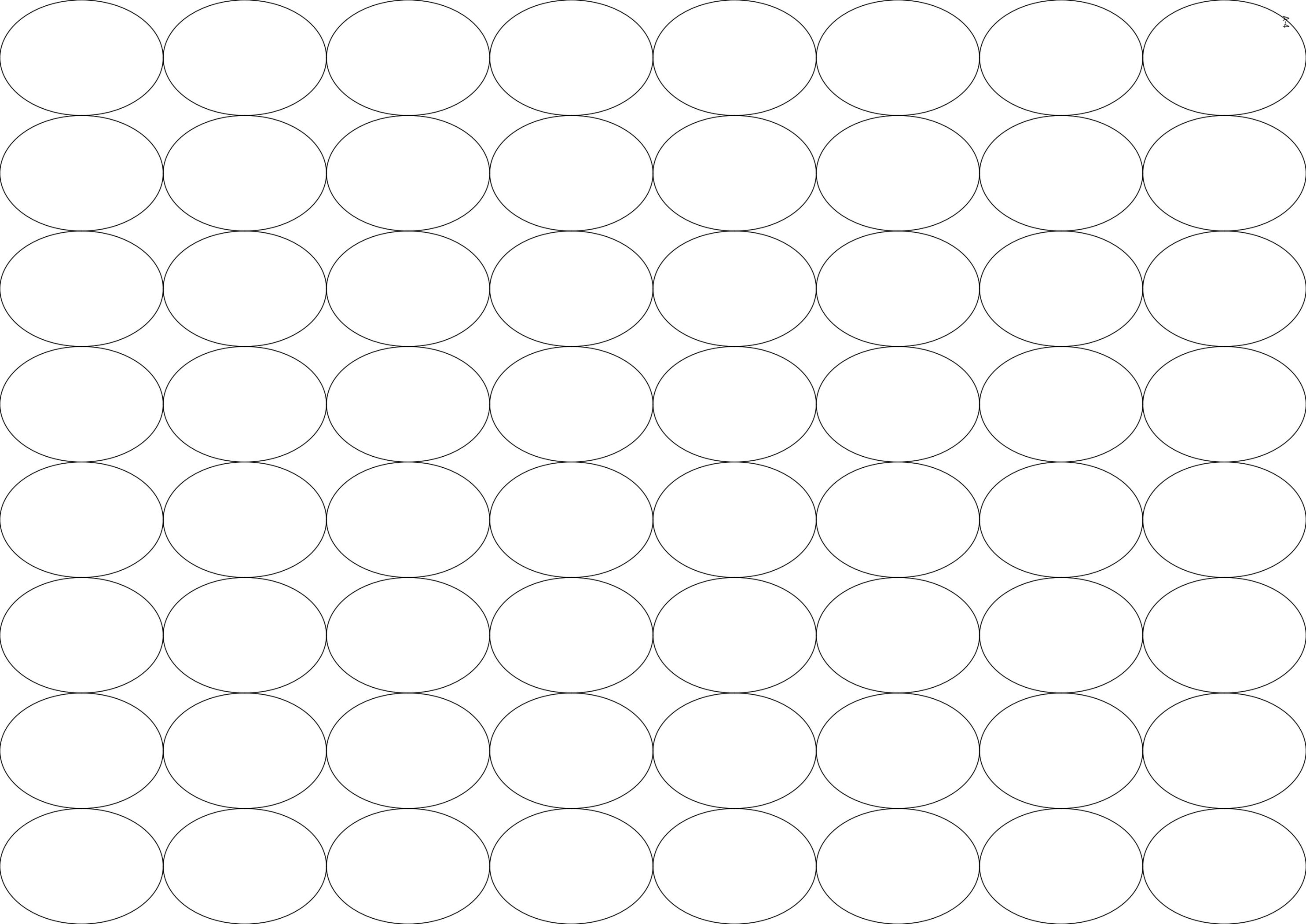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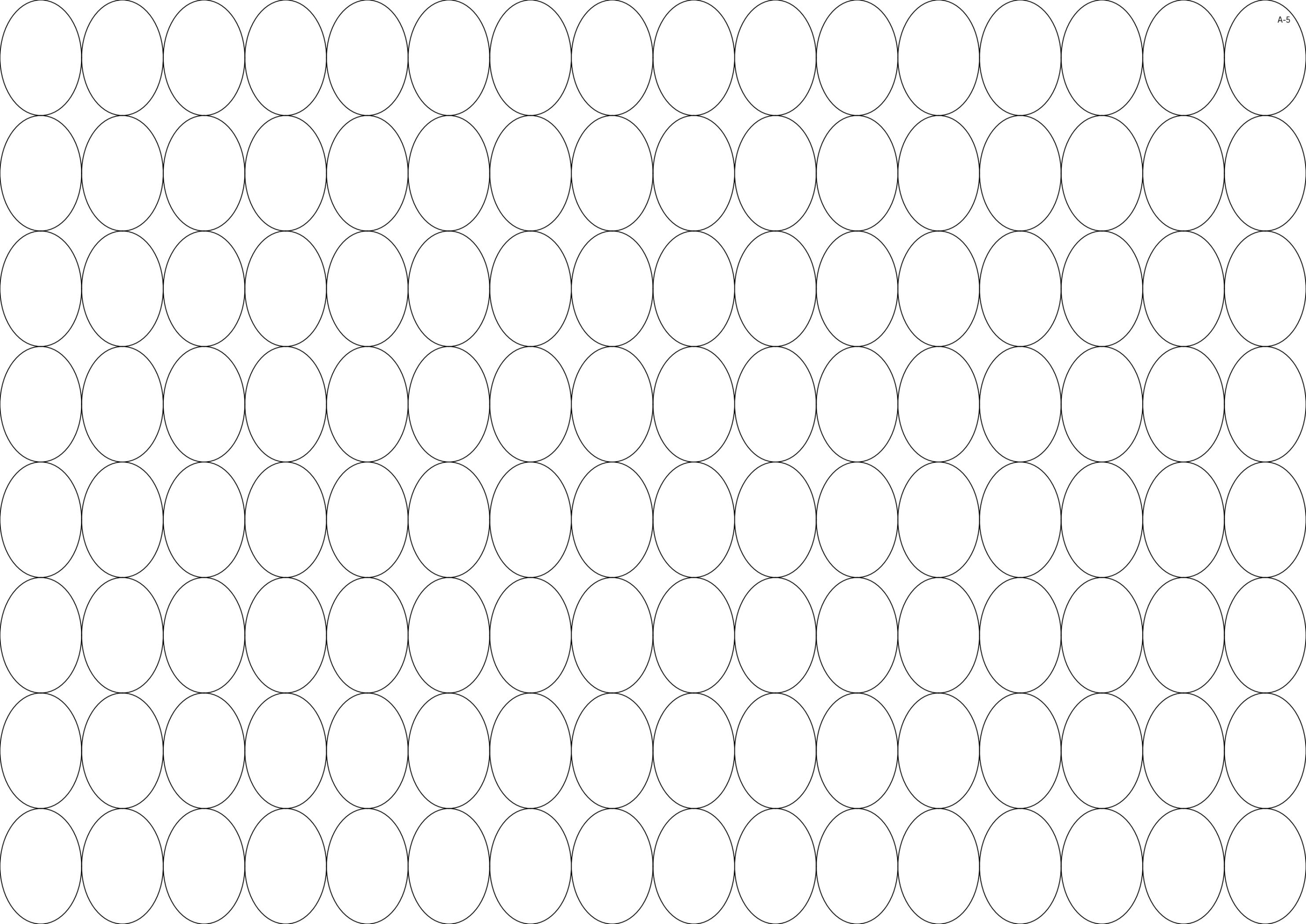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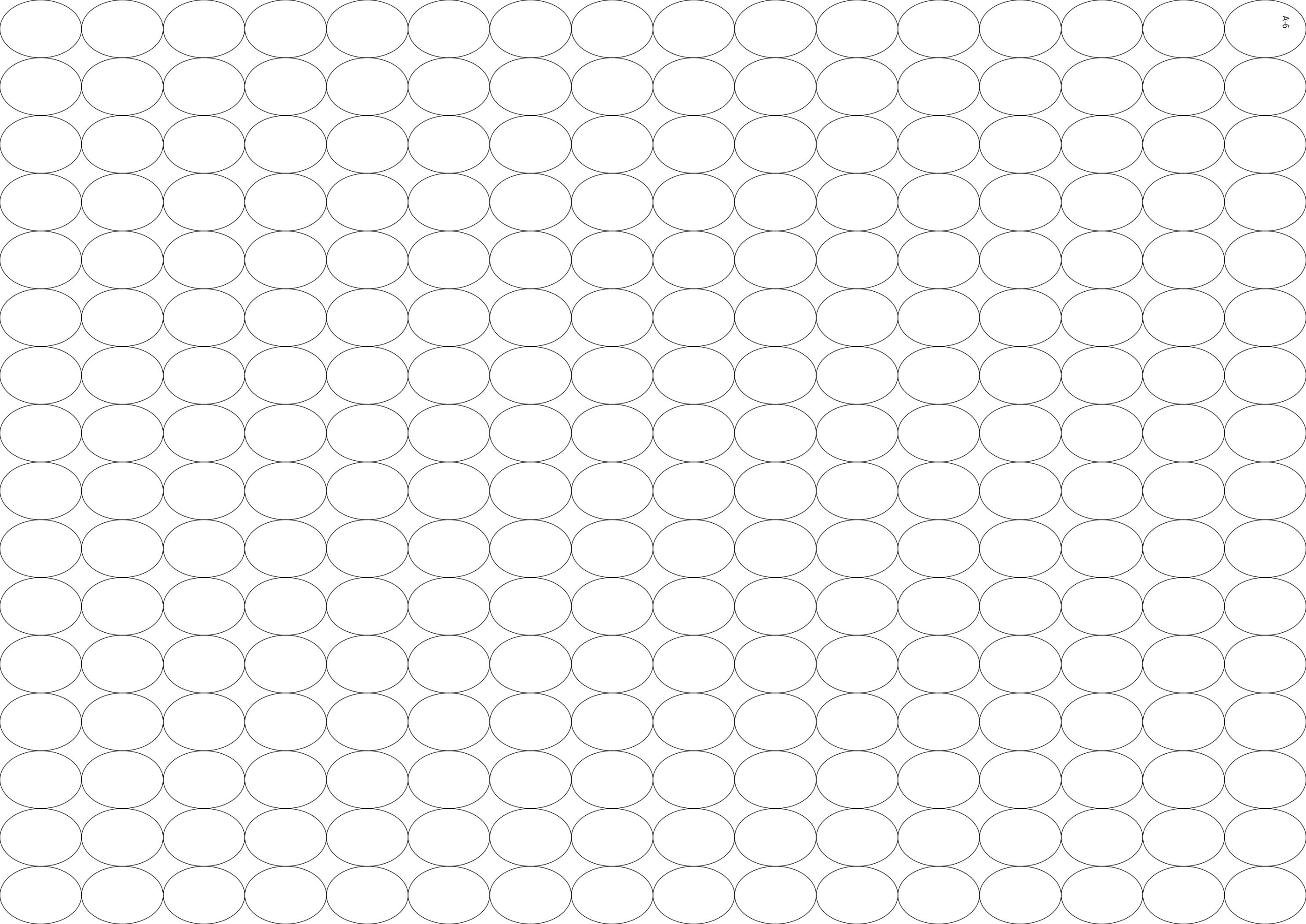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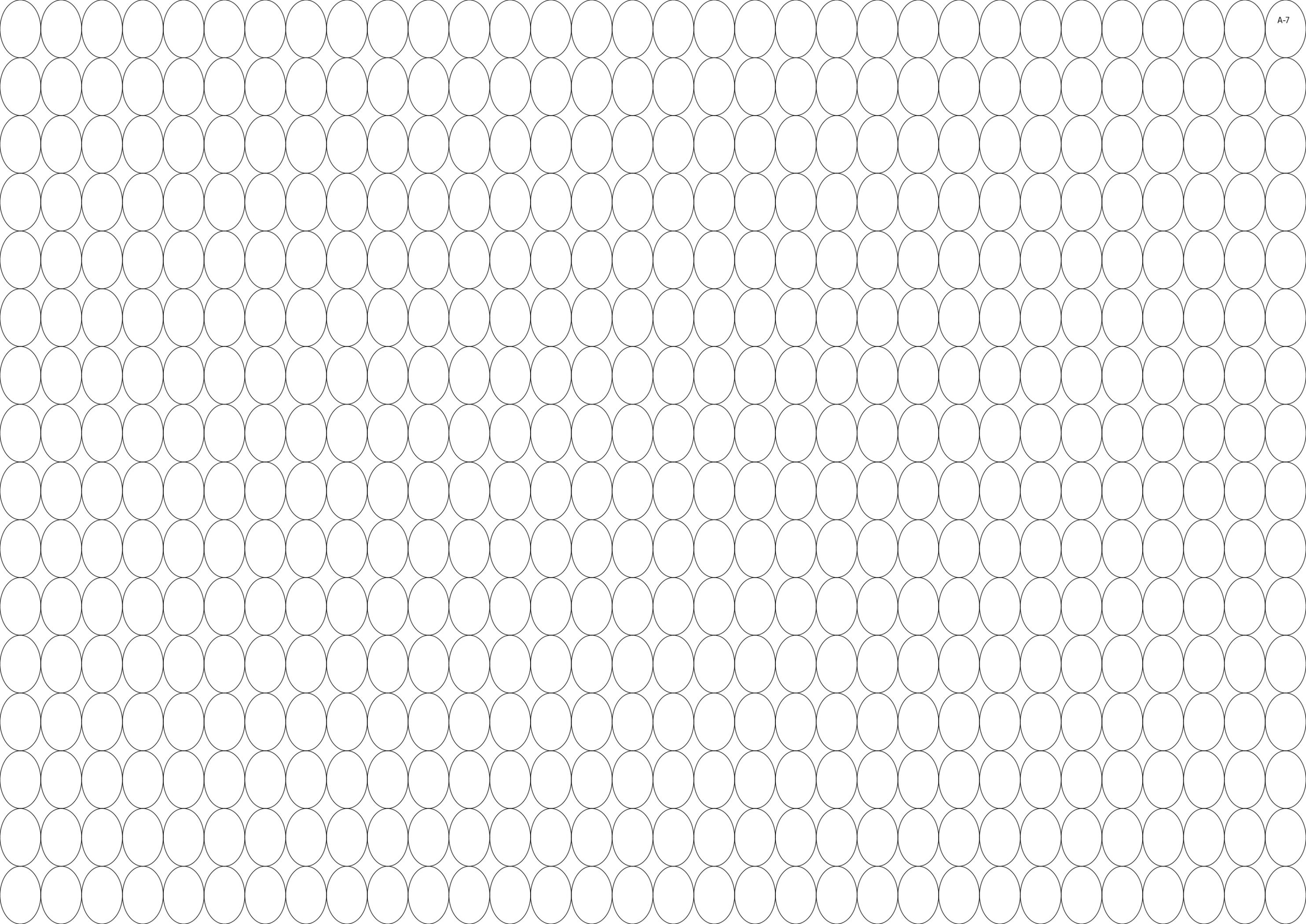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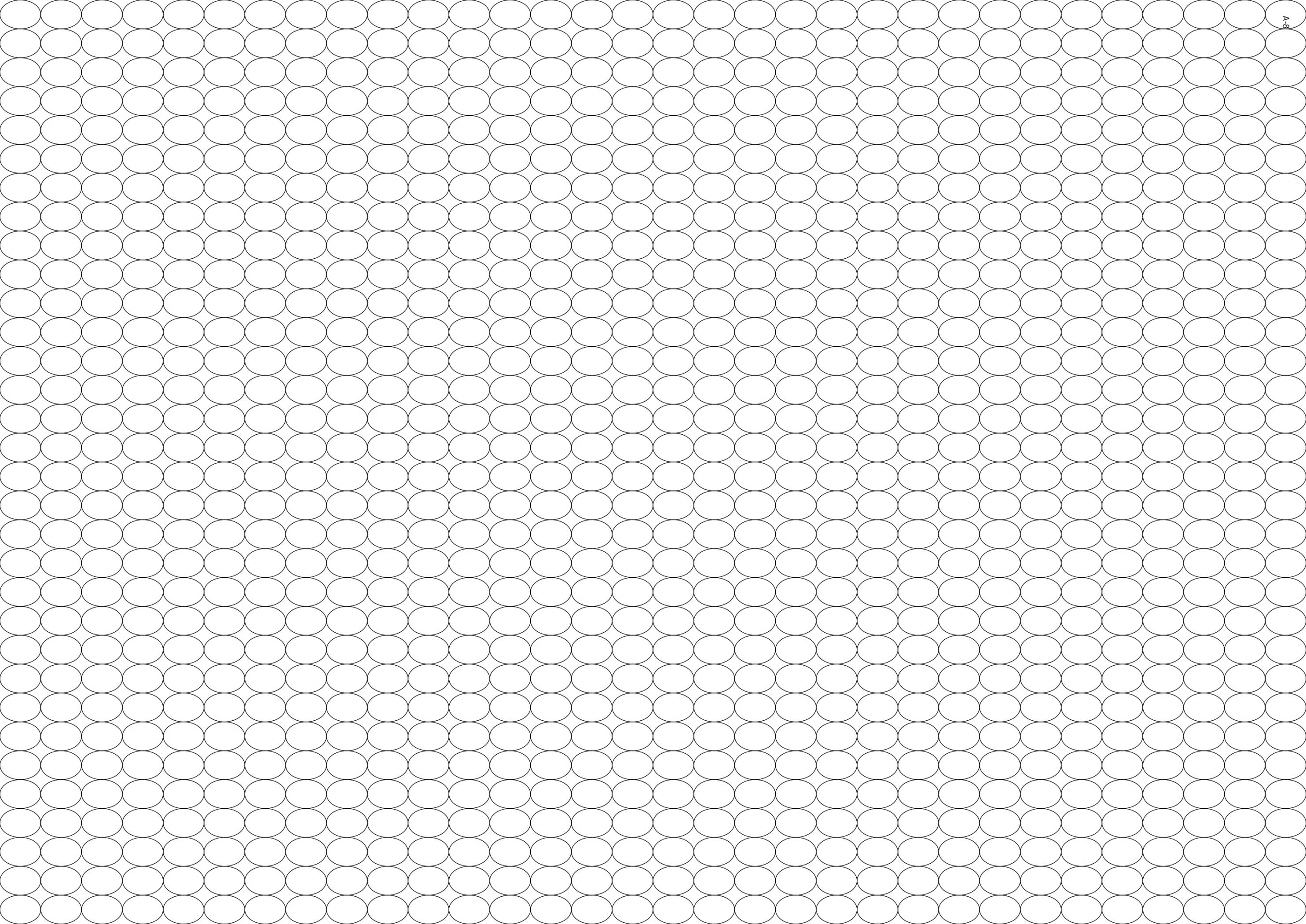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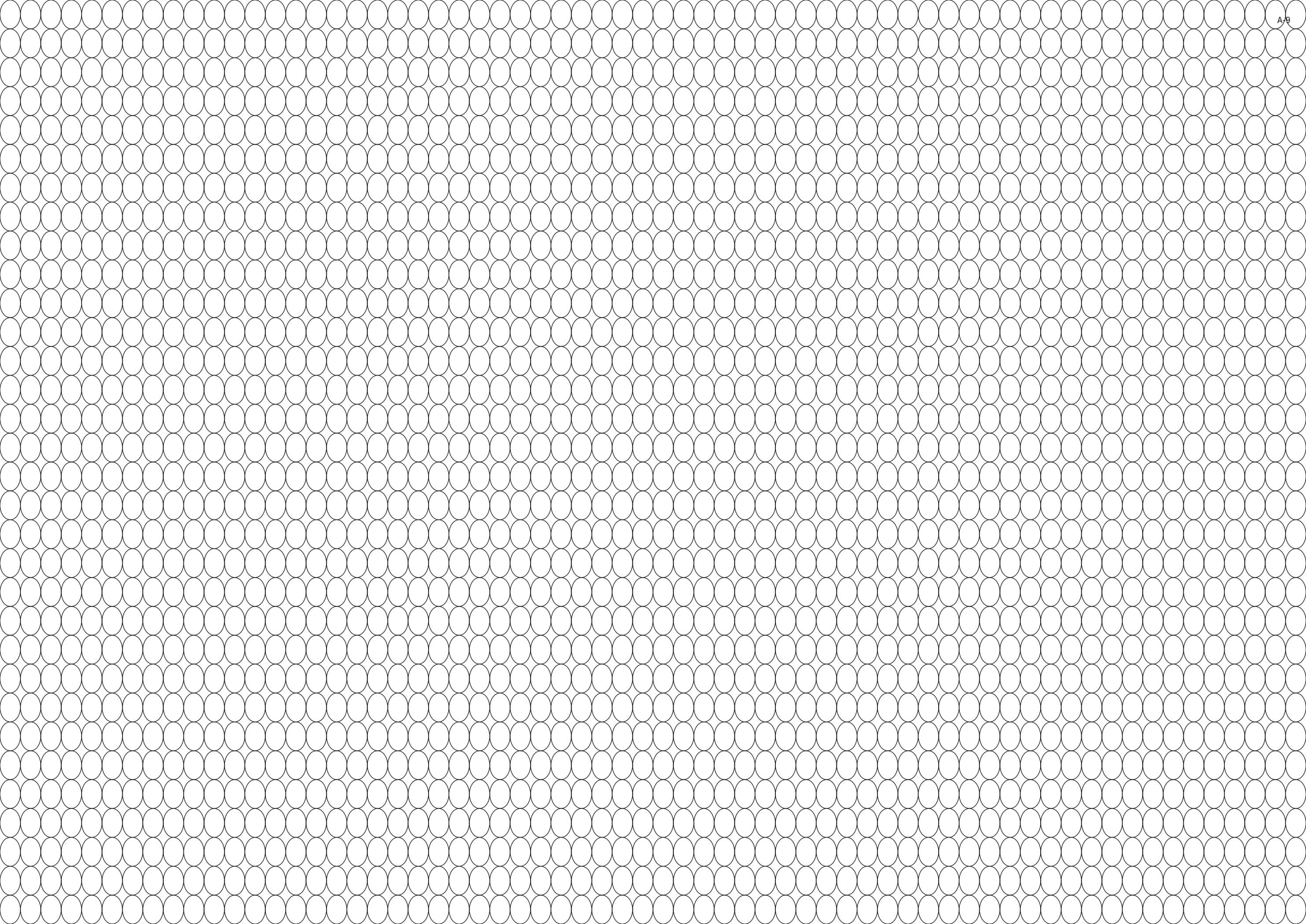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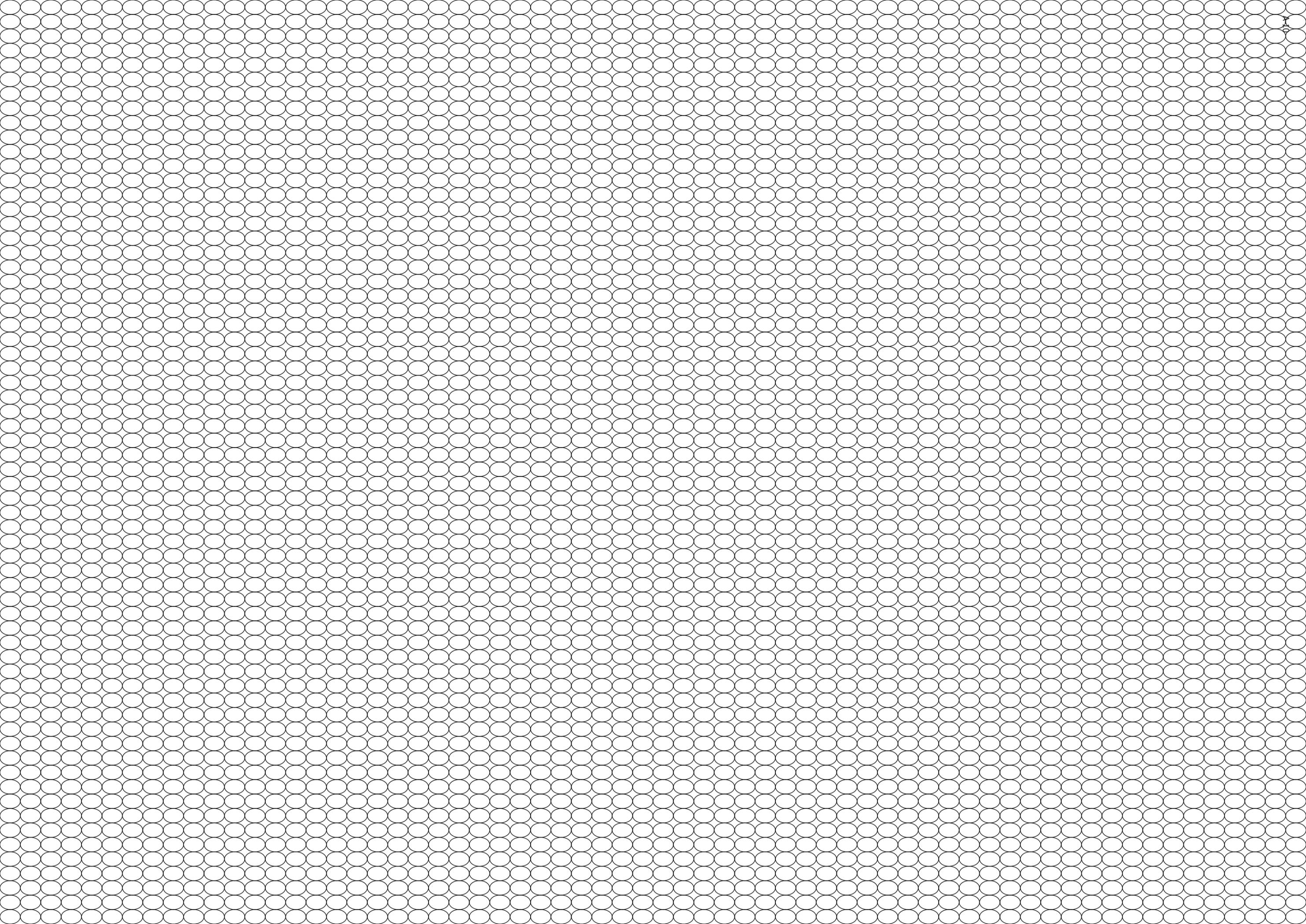














**“I like you, as much as...”**

